

# 다케노에다오가구라(獄之枝尾神樂) 연구\*

- 마을굿으로서의 제 양상 -

최용수\*\* · 김정호\*\*\*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다케노에다오가구라의 구조 |
| II. 가구라의 일반적 성격      | V. 다케노에다오가구라의 특성  |
| III. 다케노에다오가구라 조사 내용 | VI. 결론            |

## <Abstract>

A Study on Takenoedao Kagura.

-Various Phases as Maeul-Goot.-

Choi, Yong-soo · Kim, Jung-ho

Kakura in Japan means conducting a ceremony to accept god. It is one of the Japanese traditional performances, which is similar to Korean shaman rituals.

People consider Sato-Kakura that is distributed in the whole country, as a general Kakura, when they discuss about Kakura.

All Kakura start with making Kamukura, which makes the God to come down to the world. Then people accept the god to be with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72-AM2017)

\*\*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학문학과 교수.

\*\*\* 경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선임연구원.

them.

Hence, the major part of Kakura is consist of the music and dance that are offered to god. At the scene of Kakura, there are always people who believes in god.

This report deals with one of the various types of Kakuras called Takenoedao-Kakura, from Shiba region.

Shiba-Kakura is Izumo-Kakuras, which comes from Izumo region.

It consists of Torimono dances, the dance with Torimono, and mask dances, the dance with mask that describes the face of God. It is very similar to Kut in Korea.

Not only the appearance of the performance, but also the meaning of the performance is very similar to Korean Kut.

Takenoedao-Kakura, is maintaining the traditional Kakura,'s traits due to the isolate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herefore, analysing Takenoedao-Kakura's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will help to study about Kakura itself. Furthermore, it will also help to link Kakura with Kut in Korea.

## I. 서론

가구라는 가무쿠라(神座)에 신이 머물도록 하고, 신께 바치는 음악과 춤이 중심이 된다. 가구라는 카무쿠라(神座:신이 내려와서 머무는 곳)로 신을 맞아들여 그 앞에서 의식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굿판에 신을 청하여, 신과 함께 놀고, 신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 한국의 굿과 비슷하다. 그래서 가구라의 어원이 가무쿠라(神座:신이 내려와서 머무는 곳)에서 왔다고 보는 이도 있다.<sup>1)</sup>

---

1) 本田安次, 「祭と神樂」, 『日本の古典藝能 第一卷 - 神樂』, 平凡社, 1969. 59쪽.

일반 서민들이 가구라를 행하기 시작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연희해 왔으리라고 추측하고 있다. 궁정에서 벌이는 가구라를 미가구라(御神樂)라고 하고, 민간에서 행해지는 가구라는 사토가구라(里神樂)라고 한다. 미가구라는 문헌적인 자료를 토대로 연구되고 있으며, 사토가구라는 주로 민속학적인 입장에서 연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가구라를 말할 때는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사토가구라를 말한다. 가구라의 명칭은 다양한데 토지나 신사의 이름을 따서 붙이는 경우가 많다. 오카야마의 빗츄가구라(備中神樂), 이와미가구라(岩見神樂) 등이 그런 예이며, 이 외에도 슈겐도(修驗道)의 법인(法印)들이 관련된 가구라로 법인가구라(法印神樂), 신직(神職)에 관련된 신직가구라(神職神樂) 등이 있다. 계급이 낮은 종교 예능자가 여러 지역을 돌며 연희했다는 다이가구라(大神樂), 민속예능으로서 마을에 정착한 다이가구라(大神樂) 등이 있다. 이런 명칭들은 신사와 관련되는 신도(神道)와 관련이 있다. 모든 가구라는 카무구라(神座)를 만들어 신을 강림시키고 사제(司祭)가 자신의 몸 속으로 신을 맞아들임으로써 인간이 신으로 변한다. 가구라 연희 현장에서는 신이 언제 어디에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sup>2)</sup> 신들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고 나타나서 그 상황에 따라 그 성격도 자유롭게 변한다고 한다. 즉 산에 살면서 사람들의 일상을 도와주는 신, 바다 저편으로부터 와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신, 나무와 숲에 숨어사는 신, 부엌에서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신 등 다양하다. 일본인이 생각하는 신들은 생활과 장소의 구별이 없이 어느 곳이나 있으며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디든지 붙어서 갖가지 현상을 보여준다고 믿고 있다. 신사(神社)에 모시는 신들은 신덕(神德)의 면에서 아주 폭넓게 영력(靈力)을 발휘한다. 이러한 신들을 모시고 있는 신사는 일본 고유의 신도(神道)를 만들게 되었고 일본 전국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면서 신화의 내용도 중시하는

2) 上田正昭, 위의 책. 60쪽.

경향까지 생기게 되었다.

가구라는 한국의 마을굿과도 많이 닮아 있다. 마을굿은 공간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생활환경과 정서적 체험을 바탕으로 공유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복을 기원하는 의례이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마을굿 중에는 마을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공동의 목적을 가진 주민들의 기원을 비는 곳이 있다. 주로 바닷가 마을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풍어제’나 ‘별신굿’이다. 특히 서해안 지방의 풍어제는 마을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마을 풍물굿과 무당이 주관하는 무당굿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곳이다.

본고에서는 일본 큐슈 시이바 지역의 가구라 중에서 다케노에다오가 구라 연희 현장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 가구라의 성격을 살피고, 한국의 마을굿 중에서 서해안의 황도 마을에서 연희된 봉기풍어제와 비교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 II. 가구라의 일반적 성격

일본의 민속예능이란 ‘전문 예능인이 아닌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전승되어 온 예능’이다. ‘민속예능’이란 용어는 비교적 근래에 생겨난 것이고, 그 이전에는 ‘민속예술’ 혹은 ‘향토무용’으로 칭해져 왔다. ‘민속예능’이란 장르가 원래부터 존재하던 영역이 아니라 전문 예능인에 의해 연희되던 무대예능인 ‘노’(能:가면음악극)나 ‘카부키’(歌舞伎:일본의 대표적인 연극) 등에 대립되는 예능을 총칭하여 ‘민속예능’이라 불려왔다. 민속예능이 지닌 특징은 연희하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 즉 민속예능은 전문 예능인이 아닌 일반 서민들이 연희하는 것이고 예술적 요구가 아닌 대대로 내려온 생활습관에 의해서 행해지는 예능이다. 또한 연희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다. 이는 무대예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여성배역을 남성이 분장하여 담당할 만큼 남성 중심의 경향이 강하

다. 또한 민속예능은 신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연희자와 관객의 구별이 없다는 것도 민속예능이 지닌 성격을 잘 나타낸다. 즉 민속 예능은 보이기 위한 예능이 아니라 연희자와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예능이기 때문이다. 연희자와 관객은 서로 상통할 수 있는 일체감을 갖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희자가 관객이 되기도 하고 관객이 연희자가 될 수도 있다. 연희자는 연령이나 순번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민속예능의 진정한 관객은 神이 된다. 연희자와 관객은 신에게 자신들의 예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속예능은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神座(신이 내려와서 머무는 곳)로 신을 맞아들여 그 앞에서 일련의 의식을 행하는 가구라(神樂) 계통, 도작의례(稻作儀禮)의 성격을 지닌 예능인 덴가쿠(田樂) 계통, 마쓰리의 장식 행렬과 행렬꾼들의 춤을 말하는 후류(風流) 계통, 고토다마(言靈) 신앙에 바탕을 둔 슈쿠후쿠게이(祝福藝) 계통이다. 이 중에서 특히 가구라 계통은 신을 강림시키고 사제가 자신의 몸 속으로 신을 맞아들임으로써 인간이 신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인간들이 신의 영력을 빌려와서 생활의 안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지자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가 굴 안에 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끌어내려고 악기를 울리고 유인하는 의례를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본학자 우에다(上田正昭)는 일식(日蝕)에 대한 주술설로 설명하면서, 가구라를 하는 계절인 음력 11월(양력 12월)이 태양의 활력이 가장 쇠약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의례가 태양신의 활력을 부활시키는 주술이라고 밝히고 있다.<sup>3)</sup> 가구라를 연구하는 일본학자들은 이것을 진혼제(鎮魂祭)라고 했으며, 신의 주술을 통해서 선한 영혼을 움직여 사악한 영혼을 진압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4)</sup> 특히 다케노에다오가구라의 ‘야도가리’

3) 上田正昭, 「神樂の命脈」, 『日本の古典藝能 第一卷 - 神樂』, 平凡社, 1969. 17쪽.

4) 앞의 책. 13쪽.

는 소노카라가미제와 관련이 있다. 소노카라가미가제의 제차에 산 사람이 휘파람을 불면서 나타나서 춤을 추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나중에 궁중의 가구라에도 나타난다. 산사람이 하룻밤 묵어 가기를 청하자 집주인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허락을 하고 산사람의 보물인 지팡이를 건네받는 내용이다. 산의 신 즉 하늘과 가까운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을 상징한다.<sup>5)</sup>

일본 각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가구라는 네가지 종류로 분류된다.<sup>6)</sup> 무녀의 춤과 액스터시 상태로의 몰입을 기본으로 하는 ‘미코가구라(巫女神樂)’가 있고, 특정 물건을 손에 들고 춤을 추는 ‘토리모노춤(採物舞)’과 가면춤으로 이루어지는 ‘이즈모가구라(出雲神樂)’가 있으며, 가마솥에서 끓인 뜨거운 물을 신에게 바치는 유다테춤(湯入舞)으로 구성된 ‘이세가구라(伊勢神樂)’가 있는데 많은 무당들에 의해 행해지는 전국적인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규모나 형식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북청 사자놀이와 비슷한 사자머리 모양의 가면을 쓰고 악귀를 물리치는 시시가구라(獅子神樂)가 있다.

가구라는 의례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이들 내용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이즈모가구라에서 유다테춤이 행해지거나 이세가구라에서 무녀춤과 토리모노춤이 행해지기도 한다. 지

5) 야도가리에서 여행객의 역을 맡았던 中瀬 守(74세)와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여행객이 산신이며 마을에 복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야도가리에서 여행객은 오랫동안 제가 맡아서해왔습니다. 초라한 몰골의 여행객에게 잠자리 내주는 것을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잘 곳을 마련해주는 주인과 여행객, 중재역을 하는 사람들의 대화가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온 사람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결국 그 여행객은 마을에 복을 가져다주는 산신이 됩니다."라고 했다.

6) 가구라의 종류는 혼다야스지(本田安次)와 미스미하루오(三陽春雄)가 명칭을 달리해서 분류했는데 내용이 비슷하다. 혼다야스지는 ‘무녀류가구라, 이즈모류가구라, 이세류가구라, 사자가구라’로 나누었고, 미스미하루오는 ‘토리모노가구라, 유다테가구라, 사자가구라’로 나누었다.

금 연희되는 가구라는 종교적인 측면보다는 오락적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변형되었고, 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가구라는 시이바 지역의 가구라다. 시이바 지역의 가구라는 이즈모가구라에 속한다. 이즈모가구라는 이즈모(出雲) 지역에서 비롯된 것인데, 토리모노를 들고 춤을 추는 토리모노춤과 신의 얼굴을 묘사한 가면의 쓰고 춤을 추는 가면춤으로 이루어져 있다. 토리모노춤이란 신장대 역할을 하는 특정 물건을 들고 추는 춤이다. 토리모노는 방울, 부채, 나뭇가지, 창, 고헤이, 활, 검 등과 같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건을 주로 사용한다. 토리모노를 들고 춤을 추면서 신을 청하는데 사제는 신관이 주로 담당한다. 원래 토리모노춤은 춤을 추지는 않고 토리모노만을 흔드는 의식이었다. 지금 전승되고 있는 토리모노춤의 춤사위는 무녀춤을 모방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가구라의 가면은 다른 예능에서 행해지는 가면춤의 요소를 수용한 것들이다. 가면춤은 토리모노춤을 추고 나서 주로 하는데, 내용으로 볼 때 토리모노춤은 신을 맞아들이려는 의도이고, 가면춤은 지상으로 내려온 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그 위력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가구라가 과거의 모습에서 많은 변화를 거친 것은 가구라의 노래나 유래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조사대상으로 삼은 시이바가구라는 산간 오지에서 행해진 가구라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미가구라가 지닌 요소인 토리모노춤과 노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가구라의 옛 모습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

### Ⅲ. 다케노에다오가구라 조사 내용

\*조사 일자: 2003년 12월 5일부터 2003년 12월 12일까지

\*조사 장소: 일본 큐슈 미야자끼켄 시이바손 오오가와치 다케노에다오

히아테(日本 九州 宮崎縣 推葉村 大河内 獄之枝尾日当)

\*가구라 일시: 12월 6일 오후4시부터 12월 7일 오전 11시까지

미야자끼켄 히가시우수끼군 시이바손(宮崎縣 東臼杵郡 椎葉村)은 미야자끼켄에 속해 있으나, 현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구마모또켄(熊本縣)에 가깝다. 시이바 손의 면적은 동서 27km, 남북 33km 총 면적이 537.29km<sup>2</sup>에 달한다. 한 개의 村으로서는 매우 넓은 편에 속한다. 마을은 산악이 중첩되어 있고 평지는 거의 없다. 산의 경사도 급하고 계곡도 아주 깊다. 면적의 95%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sup>7)</sup>. 미미노가와, 오마루가와라고 하는 강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히토츠세가강이 남쪽에서 각각 지류를 합류하여 수량이 아주 풍부하다. 강수량도 많아서 전쟁 전후에 걸쳐서 많은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주요 하천이 거대한 인공호가 되어 있다. 예전에는 시이바 산향이라고 불렀던 마츠오(松尾), 시모후쿠라(下福良), 오오가와치(大河内), 후도노(不土野)의 네 개 마을이 합병되어 시이바손(椎葉村)이 된 것은 明治 22년(1889) 4월이다. 시이바 마을의 시작에 대한 기록은 「椎葉山由來記と根元記」에 자세히 있다. 나가토국 단노우라에 패배한 평씨일가의 잔당이 산속 깊이 도망와서 숨어 살았는데, 이를 토벌하도록 명을 받은 나수다이하치로무네히사(那須大八郎宗久)는 패전의 잔당들을 죽이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 했다. 위로의 표시로 평씨 일가가 모시고 있던 카시마묘우진(巖島明神)과 그 외의 4 개 신사를 산중에 건립하고 농민으로서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

7) 2002년도에 발간된 시이바에 대한 통계 자료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宮崎縣 椎葉村, 『村勢要覽資料編』, 2002,1)

土地利用狀況

單位:ha

地図	田	畑	山林	草地	樹園地	その地	合計
面積	145	63	51,484	197	21	1,710	53,620
%	0.3	0.1	96.0	0.4	0	3.2	100

들은 무네히사(宗久)의 덕을 기리어 무네히사가의 시녀인 츠루토미(鶴富)가 낳은 여자아이를 나중에 나쓰 집안(那須家)의 조상이 되게 했다고 한다. 시이바라는 명칭은 무네히사의 집을 처음으로 시이바라는 나뭇잎으로 지붕을 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8)</sup> 인구의 변화에 대한 시이바촌의 자료에 의하면<sup>9)</sup> 소화 30년(1955)에는 10,683명이었으나, 1970년까지는 매년 1000명 쯤 줄어들어서 1970년에는 4611명이었다. 그 후 조금씩 줄어들어 평성 12년(2000)에는 3,769명이 되었다. 인구 구성비는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적은 편이다. 이는 고령으로 갈수록 여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특히 노인에 대한 보건 의료비의 지원이 많고 노인 인구의 거의 100%가 연간 50만엔 이상의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다.<sup>10)</sup>

시이바에는 지금 같은 계통으로 여겨지는 가구라가 25개 지역에서 연희되고 있다. 시이바에서 가구라가 언제, 어디서부터 전해졌는 지는 확실치 않다. 이들 가구라의 공통된 특징은 이즈모 계통의 가구라로서 손에 도구를 들고 춤을 추는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가면이 등장하는 노오가쿠가 혼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계통의 가구라는 큐슈(九州) 전 지역에서 보이는 형태이다. 일본의 남쪽 지역인 九州山地 특히 미야자키켄(宮崎縣)은 다카치호가구라(高天穩神樂)와 메라가구라(米良神樂) 등 훌륭한 가구라가 많은 지역이다. 대표적 가구라의 하나인 시로미가구라(銀鏡神樂)와 시이바가구라(椎葉神樂)도 그들 중의 하나이다. 시이바가구라는 마을에 따라 곡목은 조금씩 다르지만 맨 얼굴에 토리모노를 들고 추는 춤이 중심이 되고, 가면춤이 동반되면서 밤새도록 거행된다. 시이바에는 다카치호와 메라에는 없는 시이바만의 독특한 창행이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는 편이다. 창행은 신의 내력이나 춤 도구의 유래를 창하는 것인데, 헤이안 시대 유행한 신의 노

8) 노성환, 『일본 신화의 연구』보고서, 2002. 268-269 쪽.

9) 宮崎縣 椎葉村, 『村勢要覽資料編』, 2002. 12쪽.

10) 위의 책. 19쪽.

래가 불러졌다. 또한 산악지대의 수렵이나 화전경작을 전하는 곡목이 많고 산촌생활을 잘 표현하고 있다.

시이바 지역의 가구라는 산간 지역에서 행해진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비슷한 지역에서 연희되고 있는 가구라인데도 불구하고 다카치호가구라와 메라가구라는 알려져 있으나, 시이바가구라는 최근에야 조사연구가 시작되어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山口保明은 시이바손(椎葉村)를 민속학의 최초의 발신지라고 하면서, 가구라에 바치는 음악에 대해 전반은 ‘신께 바치는 장중한 음악’으로 되어 있고 후반은 ‘백성께 바치는 음악’으로 모든 신과 모든 사람이 하나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sup>11)</sup>

다케노에다오는 시이바의 중심지인 가미시이바(上推葉)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미미노가와(耳川)를 끼고 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 지역은 시이바의 4개 지구(시모후쿠라 지구, 오오가와치 지구, 마츠오 지구, 후도노 지구) 중에서 오오가와치 지구에 속한다. 가구라가 연행되는 지역은 시이바손 오오가와치 다케노에다오 히아테(椎葉村大河内獄之枝尾日当)에 자리잡고 있는 다케노에다오 진자(神社)에서 행해졌다. 시이바 마을의 중심지인 가미시이바(上推葉)에서 택시를 타고 국도 265호선을 약 25분 정도 남쪽으로 달리면 미미노가와(耳川)라는 강이 나온다. 강을 끼고 있는 작은 마을이 다케노에다오 히아테이다. 시이바에는 히아테와 히조에 라는 지명을 쓰는 곳이 무카이야마와 다케노에다오 두 군데 있다. 히아테(日当)는 해가 뜨는 곳을 향해 있어서 해를 따라 움직이는 동네이지만 히조에(日添)는 해를 등지고 있는 곳이라 해가 잘 들지않는 동네이다. 12월의 추운 겨울에 해가 잘 뜨는 히아테는 양지바른 언덕에 자리잡아 따뜻하고 해가 잘 안드는 히조에는 늘 그늘져 있다. 다케노에다오의 경우는 히조에에서 히아테 마을이 바라 보이는데 히아테 마을은 양지 바르고 아주 따뜻하다. 저녁 해질 무렵에야 해가 비치는 히조에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은 히아테보다 시원하

11) 山口保明, 「宮岐縣の民俗藝能(三)」宮崎縣民俗學會, 2001. 13쪽.

다고 한다. 다케노오다오 구내에는 3개의 무라가 있는데, 히조에무라, 히아테무라, 우스키마타 무라이다. 히조에와 히아테는 함께 신사를 모시고 가구라를 한다. 우스키마타는 독립을 해서 신사는 같은 곳을 모시지만 가구라는 따로 한다. 그들은 가구라보다 봄축제(하나마츠리)를 크게 하는 편이다. 차이가 있다면 우스키마타는 음악이 6박자이고, 히아테와 히조에는 8박자로 되어 있다고 한다. 거주하는 성씨는 나까세(中瀬)와 시이바(椎葉)가 반 반 씩인데 히조에에 오다상(小田)과 가이상(甲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시이바와 나까세 집안이다.

다케노에다오 신사는 다케노에다오 지구의 히아테(12가구), 히조에(9가구), 우수끼마타(12가구) 세 마을<sup>12)</sup>의 신사이다. 주로 축산과 임업으로 생활을 하는데 버섯 재배가 전체 수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쇼와43년(1968년)까지는 민가가 가구라야도(神樂宿)였으며 세 마을이 돌아가면서 행해왔다. 각각의 마을에는 좌역(座役)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 책임지고 가구라야도(神樂宿)를 확보한다.

가구라를 행하는 미가미야는 데이노마(응접실)에 설치한다. 가구라야도를 대야도라 하고 그 이웃집을 소야도로 빌려서 대야도에 다 수용이 안될 경우에 식기와 도시락을 준비하는 장소로 사용한다. 가구라에서 춤추는 사람을 호우리꼬(축자) 혹은 마이꼬(춤꾼)라고 한다. 장남만이 호우리꼬가 된다는 조건은 없고 희망자로 정해진다. 춤의 선생 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구라도오토리(神樂頭取)라고 하고 다까마가하라 장

12) “다케노에다오에는 3개의 마을(슈락:集落)이 있다. 히아테와 히조에와 우스키마타이다. 이들 세 마을은 히아테에 있는 진자를 공동으로 모시고 있는데, 히아테와 히조에는 가구라를 함께하나 우스키마타는 따로 독립해서 가구라를 한다. 히조에와 히아테 마을의 사람들은 가구라에 참석을 하지만 우스키마타 마을 사람들은 가구라에 오지 않는다고 한다. 진자는 세 마을이 같이 쓰지만 우스키마타는 가구라를 독립해서 따로 한다고 한다. 진자가 자리하고 있는 곳은 히아테 마을이다. 히아테는 햇빛이 따라다닌다는 뜻이고, 히조에는 늘 응달이라는 뜻이다.” [12월10일 다케노에다오 (히아테) 마을 인터뷰 - 시이바 미야꼬 (椎葉 宮子, 여자 56세)]

식과 제물을 담당하는 역을 나까지(中司)라고 한다.<sup>13)</sup> 춤연습 하는 것을 나라시라고 하는데 밤에 배우기와 낮에 배우기가 있다. 한 달 전부터 신사의 배전에서 2, 3일에 한 번씩 밤에 배운다고 한다.<sup>14)</sup> 쇼와 43년(1968) 이전에는 민가를 춤배우는 장소로 했으며 집주인이 까라이모야죽 등을 대접하기도 했다. 가옥의 개량 등으로 민가에서는 가구라하는 것이 곤란해지면서 지금은 신사의 배전을 개축하여 신사에서 한다. 신사는 본전과 배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전은 규모가 크지않다. 예전에는 본전 앞의 작은 배전에서 미야가구라와 다이진가구라를 하고 가구라를 하는 민가로 갔으나 지금은 민가에서 가구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배전에서 미야가구라와 다이진가구라를 간단하게 한다.<sup>15)</sup> 원래 가구라야도를 민가로 했을 때는 신사를 출발할 때나 토리이(신사입구) 혹은 다리를 건널 때는 그 직전에 칼의 미사끼와 활의 미사끼를 하고<sup>16)</sup> 창행을 소리친다. 민가인 가구라야도에서는 한 사람이 길놀이꾼

13) 1차 년도에 현장조사를 했던 시이바의 무카이야마히조에가구라에서는 춤꾼(가구라꼬)이 반드시 장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그러나 다케노에다오가구라에서는 꼭 장남이어야 한다는 규칙은 없고 장남이 하는 것이 좋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자녀가 하기도 한다고 했다.

14) 이번 현장 조사에서 본 다케노에다오 가구라에서는 12월에 가구라가 있기 전, 약 두 달동안 일주일에 2일에서 3일 정도, 하루에 3시간 씩 연습했다고 한다. 시간이 넉넉지 않아 모이기 힘들때는 모이는 횟수를 줄이고 날짜를 단축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때도 있다고 했다.[인터뷰 내용: 椎葉 一(45세, 27년간 가구라에 참가한 행사 담당자)]

15) 원래 민가에서 가구라를 할 땐, 시메의 대체에서는 가구라야도(민가)에서 신사에 신맛이를 하러 간다. 신사에서 미야가구라(宮新樂)와 다이진가구라(大神神樂)를 봉납한 후에 가구라야도를 향해서 길놀이에 들어간다. 길놀이는 ‘칼의 미사끼(칼부정)→구우지(宮司)→활의 미사끼(활부정)→미꼬시가구라→대북잽이→피리잽이→소라나팔→다이진가구라의 춤꾼 4명→호우리꼬(일본 전통복장)→참배객’의 순서로 들어간다.

16) 미사끼는 신의 행렬을 할 때 선두에 서서 부정을 물린다는 것인데 한국의 굿에서 부정물림(부정치기)을 하는 것과 같다.

을 맞기 위해서 북을 치고 있다. 가구라야도에 도착하면 바깥제당의 다까마가하라를 향해서 일렬로 서서 구우지가 축문을 읽고 차례로 야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민가를 가구라야도로 한 시메 대제는 쇼와 40년(1965) 다케노에다오 히조에의 나까세아사오 집에서 했던 것이 마지막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신사의 배전에서 시메의 대제를 거행하고부터는 칼의 미사끼, 활의 미사끼를 하지 않는다. 배전은 10년 전에 사람들이 모여 가구라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증축을 했다고 한다. 10년 전 태풍으로 진자 앞의 큰 나무가 부러지고 지금은 그 흔적만 거대한 뿌리로 남아 있다.

다케노에다오가구라는 시메의 대제와 평제가 있는데 규모와 시설, 곡목에 차이가 난다. 과거에는 3년에 한 번씩 대제를 했으나 지금은 가구라 보존을 위해 매년 시메의 대제를 한다. 가구라에 사용하는 가면은 지금 조세이멘(女性面), 도토리멘((戶取り面), 기진멘(鬼神面), 타지카라멘(手力面) 등 네 개의 면이 남아 있지만 예전에는 16개의 가면이 있었다고 한다. 메이지 44년(1911년) 당시의 가구라야도였던 히아테의 椎葉善千代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가구라 가면을 포함한 가구라 도구들이 불에 타서 소실되었다. 지금의 가면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빌려서 사용하다가 그 이후 다케노에다오의 마을 공동 재산으로 가면을 보유하고 있다.<sup>17)</sup>

시이바가구라도 다카치호나 메라와 마찬가지로 이즈모(出雲)계통의 가구라이다. 신사나 공민관 등에 미꼬우야(御神屋)를 설치하고 정면에 다까마가하라(高天原)를 세운다. 미꼬우야의 천장에는 구모(구름)라는 일종의 천개를 단다. 사각형의 것과 원형의 것이 있다. 도르래를 달아 줄을 당기면 흔들리는 곳과 천장에 고정되어 흔들리지 않는 곳이 있다. 구모를 걸지않고 페(고헤이)를 거는 곳도 많이 있는데 후도노지구의

17) 渡辺仲夫, 『推葉神樂調査報告書, 第三集』, 昭和58년(1983), 推葉村教育委員會, 267쪽.

후도노, 오마에, 무카이야마히아테 등지에서는 멧돼지 머리나 고기를 천장에 달기도 했다. 山口保明은 이렇게 장식을 하는 것이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8)</sup> 가구라를 연희하는 장소는 사계절의 순조로운 운행을 희망하는 염원을 담아낸다는 것이다. 가구라의 장소에 장식하는 외주련(外注連)과 내주련(內注連)에도 음양오행설이 지켜지면서 지금은 거의 모든 마을의 가구라에 정형화되어 있다. 음양오행설은 춤을 출 때도 지켜지는데 북소리에 맞추어 동서남북을 반드시 밟으며 중앙을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가구라 제장에서 음양오행설이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우주의 구성원리를 말하는 것이며, 자연계와 인간계에 관련된 모든 것의 질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또한 사계의 순조로운 운행이 그들의 수렵 대상인 동물이나 조류를 번식시키는 것이며 자연을 통해 양식을 얻고 삶의 터전을 얻는 사람들의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 바탕을 둔 의식은 가구라의 연희 목적이 자연과의 조화와 함께 마을 공동체의 조화를 기원하는 것과 일치한다.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12월에 산간지대에서 행해지는 가구라는 대자연과 인간이 생명의 근원인 태양이 여위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의 힘을 빌어 자연의 힘을 얻고자 함에 있다.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진 것은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가 굴 안에 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궁중에서는 그를 끌어내려고 악기를 울리고 유인하는 의례를 했다고 한다. 가구라는 이러한 초기의 궁중 의례와도 성격이 같은 것이다. 다케노에다오에서 연희된 가구라의 제당 장식은 안쪽과 바깥의 두 곳에 설치되었다. 안쪽 제당의 배전은 가로 7칸, 깊이 4칸 반, 다다미 56매 중 신당은 본당 쪽으로 다다미 8매 정도이며 정면에 다까마가하라(제단)를 설치한다. 춤추는 곳은 다다미 6매 정도의 크기이다. 신당의 사방에는 붉은 색의 미즈히끼마쿠

18) 山口保明, 「宮岐縣の民俗藝能(三)」 『미야자키 民俗』第51号, 宮崎縣民俗學會, 2001. 15쪽-20쪽.

(水引幕)이라는 막을 친다. 사계절을 상징하는 종이(에리모노)를 장식하고 신전 옆에는 안쪽에 9장, 다른 방향에는 바깥 쪽에 각각 9장을 건다. 신목에 5 색의 깃발, 적색과 녹색의 천을 양쪽에 걸친다. 다까마가하라 양쪽 앞에 있는 기둥에 붉은 천을 감아 ‘다케노에다오’라고 쓴 등을 단다. 바깥 제당은 통나무와 대나무를 골조로 하고 단은 푸른 대나무를 갈라 옆으로 진열한다. 바깥 제당은 전체가 상록수 나무로 된 담장과 같다. 중앙의 다까마가하라를 중심으로 오른쪽 담장은 솟줄(새끼줄을 길게 펼쳐서 설치), 왼쪽 담장은 암줄(뱀이 몸통을 끈 것같이 만든다)의 짚으로 만든 뱀 두 마리를 놓는다. 담장의 왼쪽에 츠나시바(網芝)를 설치한다. 여기에는 사까끼가지를 묶은 것은 꽃아 놓는다. ‘이나리가구라(稻荷神樂)’를 할 때<sup>19)</sup> 시바이레(芝入)를 맡은 사람이 이 신목을 안고 배전 안으로 들어간다. 특히 바깥 제당에는 ‘시메다테(注繩立:시메세우기)’<sup>20)</sup>를 할 때 다까마가하라의 좌우에 6개씩 12개의 시메<sup>21)</sup>를 설치한다. 시메는 푸른 대나무(6개가 약 6 m, 나머지 6개는 약 3.6m)에 짚으로 둥글게 땀은 혜와(浮輪)를 아래와 위의 두 단으로 꽃아 폐를 4개 꽃는다. 시메의 꼭대기에는 사까끼 가지와 간무리폐를 꽃는다. 혜와에 꽃는 소폐, 시텐가에리의 폐, 간무리폐 외에 사까끼 가지, 일장기가 그려진 부채, 삼베(麻)줄, 미카사(御笠), 소리모노(反物), 시텐가에리(四天返り), 우키와(浮輪)를 꽃는다. 시메의 대는 푸른 대나무(靑竹)인데 24절기를 나타낸다. 제물은 12가지(12 달을 상징)를 산보우(三方)<sup>22)</sup>라는 쟁반에 올려 안쪽 제당과 바깥 제당에 같은 종류를 같이 해서 놓는다. 제물의 종류는 술(御酒), 소금, 희생물, 백미, 벼, 야채 등이

19) 다케노에다오가구라의 次第(33 제차) 중에서 세 번째 제차이다.

20) 다케노에다오가구라의 次第(33 제차) 중에서 열세 번째 제차이다.

21) 시메에는 3종류의 이름이 있다. 하나지메(花注連), 시메(注連), 슈미센(珠味扇)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귀하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한다.

22) 신이나 귀한 사람에게 바치는 물건을 엮는 네모난 쟁반.

다. 다게에다오 진자에 모시는 주신인 헤이타다이묘진(平田大明神)은 제물 중에서도 멧돼지, 작은 새, 야생토끼 등의 산에서 나온 생산물을 좋아하고 해산물은 조기를 좋아한다고 전하고 있다.

가구라 춤을 출 때 관객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구라세리’라고 한다. 다케노에다오 지역은 이것으로 유명한 곳이다. 20세 전후의 젊은 남녀가 서로 정체를 알 수 없도록 얼굴을 가리고 변장한다. 부모도 알아볼 수 없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가구라야도에 모여서 바깥 제당이나 대나무 담장의 앞뒤에서 소란스럽게 소리를 지른다. 가쿠레미의 남녀가 세리우타(노래)를 부르면, 안쪽의 제당에 있던 호우리꼬들도 세리우타를 부른다. 서로 노래부르기 경기를 하듯이 했다고 한다. 이런 가쿠레미가 단절된 것은 휴우가 시이바 댐 공사가 완성된 쇼와 30년(1955) 전후라고 한다.

가구라 도구로는 머리에 쓰는 관으로 카라스오리(侍烏帽子), 붉은 머리띠(赤鉢巻), 호우간(보관:宝冠), 케가사(털갓:毛笠), 텐간(천관:天冠), 구우지가 쓰는 검은 모자인 에보시(烏帽子)가 있다. 머리에 쓰는 관이나 가면의 착용은 미간야(제단이 있는 방)에서 행해진다. ‘야도가리’의 행객역이나<sup>23)</sup> ‘시바레이가구라’의 시바레이 역은 배전 뒤쪽의 부인회

23) ‘야도가리’에서는 허름한 복장의 여행객이 등장한다. 시이바가구라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와타나베는 시이바가구라의 특색을 찾는 실마리로서 ‘야도가리(宿借り)’, ‘우즈텐노(牛頭大王)’, ‘오끼에(おきえ)’의 세 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찢어진 갓을 쓰고 짚으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다 떨어진 짚신을 신고 대나무지팡이를 든 초라한 모습의 旅行者가 가구라 숙소(가구라야도-보통 신사)에 오면 주인은 여행자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거절한다. 그 때 중재역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祭酒를 권하면서 숙소를 내줄 것을 간청한다. 와타나베는 그의 글에서 여행자와 주인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노래를 자세히 소개하며, 여행자를 산신이며 疫神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행객은 ‘산사람’이며 ‘산신’이라는 것이다. 문답이 일부 남아 있는데 그 내용으로 봐서 악신을 물리치고 마을에 복을 가져다 주는 신의 출현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渡辺伸夫, 『椎葉神樂』, 平河出版社, 1996. 128쪽)

조리실에서 준비를 한다. 민가를 가구라야도로 할 때는 창고나 이웃집에서 준비한다. 무복은 기본적으로 바지는 흰색(白袴)을 입는다.<sup>24)</sup> ‘야도가리’에서는 행객역이 흑색 바지(黒色ズボソ)을 입는다. 상의는 백색의 무의(舞衣)를 입는데,<sup>25)</sup> 가면을 쓸 때는 무의(舞衣) 위에 항상 우찌가께(붉은 조끼:赤の打掛)<sup>26)</sup>를 입는다. 또한 어깨로부터 허리까지 길게 묶는 적색 천을 타스키(褌は)라고 한다.<sup>27)</sup> 춤출 때 손에 드는 도구로는 방울<sup>28)</sup>(輪鈴, 錢鈴), 춤패(舞幣)<sup>29)</sup>, 일장기 부채(扇:日の丸扇)를 많이 사

24) 구우지(宮司)와 기진(鬼神)은 옥색 바지를 입을 때도 있다.

25) 상의는 소매의 폭이 넓는데 이는 ‘선녀가 입고 하늘을 난다’는 새의 날개로 만든 옷이라고 믿는다고 한다. 무복의 경우는 새 모양을 닮은 무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세계 각 지역의 무당들이 새 모양을 본떠서 무복을 만들었다고 한다. 몽고의 경우는 무당옷의 어깨에는 실제로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한다. 엘리아데는 새 모양을 한 의상은 알타이인의 거주지역 전체에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옮김, 『샤머니즘』, 까치, 1992. 156쪽)

26) 우찌가께(붉은 조끼:赤の打掛)는 옛날에 병사들이 입었던 옷이라고 한다. 귀신 가면을 쓰고 나올 때는 반드시 입는다.

27) 타스키는 아주 오래 전부터 神樂之事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古事記』에 실려있는 유명한 일본의 신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은 후토타마노미고토가 신성한 제물로서 손에 들고 아메노코야메노미고토(天兒屋命)는 노리토(詔戸)를 외우면서 기원을 했으며 아메노타지키라오노카미(天手力男神)는 석실의 문옆에 서서 숨어 있었고 아노메우즈메노미고토(天宇受賣命)는 하늘의 가구야마에 있는 히카게(日影: 산지에 자생하는 식물)를 타스키(소매를 걷어 올리기 위하여 어깨부터 옆구리에 걸쳐 묶는 끈)로 이용하였다. 또 하늘의 마사키(眞折)라는 덩굴나무를 머리에 꽂고 하늘의 가구야마의 작은 대나무 잎을 손에 쥐고 아메노이와야토(天石屋戸) 앞에 통을 뒤집어 놓고 그 위에서 발을 세차게 구르면서 신이 몸에 옮겨붙은 형상을 하여 젓가슴을 드러내고 치마의 끈을 음부까지 늘어뜨려 놓았다. 그러자 다카마노하라(高天原)가 진동할만큼 수많은 신들이 함께 웃었다. ……”(김화경, 일본의 신화, 문학과지성사, 2002. 189쪽.)

28) 가구라 방울은 긴 편이나 錢鈴은 동전 모양의 고리가 끼워져 있으며, 녹이

용한다. 그 외에 칼(太刀), 활(弓), 화살(矢), 쟁반(盆), 사까끼가지(榊枝), 면봉(面棒), 망치(小槌) 등이 있다. 가장 중심이 되는 악기는 타이코(太鼓)이며, 시노부에(笛-옆으로 부는 피리)와 호라가이(ほら貝-소라나팔, 테보시(手拍子-바라와 비슷한 악기이다)도 쓰인다.

다케노에다오 히야테 (日本 九州 宮崎縣 推葉村 大河内 獄之枝尾日当)에서는 2003년12월 6일 오후4시부터 12월 7일 오전 11시까지 가구라가 연희되었다.

12월 6일 오전 8시에 다케노에다오 신사에 각자 새끼줄 한 묶음과 대나무 하나씩 들고 집합하여, 오전 9시 경에 악기와 제사 도구가 든 상자 등을 신사의 배전에 꺼내어 제단 근처에 정리해 놓았다. 구우지(궁사)를 비롯하여 우지코 총대(마을 대표자), 가구라 도오토리(가구라춤 지도 및 대표자), 연장자들이 춤 의상으로 갈아입고 제단 앞에 모여 이따오꼬시(도마세우기)를 한다<sup>30</sup>. 이따오꼬시가 끝나면 호우리꼬는 에리메<sup>31</sup>(폐를 자르는 것)와 제당 설치에 들어갔다.

가구라 연목(神樂 演目)<sup>32</sup>은 먼저 모든 신사에서 비슷한 형태로 진

술고 짧은 방울이다. 이것은 옛날에 스님(도사)들이 쓰던 것이 었다고 한다. 슈겐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9) 춤패는 종류와 개수가 다양한데, 본격적인 가구라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에리메’에서 준비한다.

30) 가구라에 쓰일 종이와 폐를 자를 때 사용하는 도마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도마는 유명한 기술자가 만들었으며 이 세상 모든 善惡이 이 도마에 나타난다. 가구라에 쓰이는 모든 것은 이 도마에서 잘린다는 내용의 노래를 하는 제차이다.

31) 고헤이를 자르는 것을 ‘에리메’라고 한다. 고헤이는 맨 먼저 부정치기의 고헤이를 잘라서 만들고 다음에 치고노가미, 지봉의 고헤이, 토리이의 시메와 문의 시메 순으로 잘라서 만든다.

32) 원래 시메 대체의 가구라 거리는 33거리로 되어 있다. (이전에는 3년에 한번씩 했으나 지금은 매년 33거리를 한다) 또한 미야가구라와 다이진가구라의 2곡은 33거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가구라야도에서 가구라를 할 때 가구라가 시작되기 전에 신사배전에서 신에게 바치는 춤이었다. 그러나 지금

행하는 일본 전통 의례인 ‘시기텐’이 있었고, 33제차를 밤새도록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각 지역에서 연희되는 가구라는 33제차로 이루어져 있다.

#### IV. 다케노에다오가구라의 구조

다케노에다오가구라의 제차는 33번으로 되어 있다. 제차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전반부 >

\*시기텐:유교식 제례 (신지-神事)신도식 제의

1.미야가구라(宮神樂):천축의 모든 신들을 맞이하는 춤

2.다이진가구라(大神神樂):신맛이 춤

3.시메다테(注繩立):신이 오시는 길을 여는 시메 세우기

4.시메쇼교(注繩の唱行):시메를 칭송하는 춤과 창행

5.야도가리(宿狩):여행객이 잠자리를 구하는 문답

6.시메호메(注繩譽):시메에 신이 내리기를 기원하는 춤

7.시메히끼기진(注繩引鬼神):기진과 공무(供舞)가 시메를 당기는 춤

\*中休み(중간 휴식)

8.미꼬우야호메(御高屋譽):미꼬우야(御高屋)를 칭송하는 창행

9.안나가(安永):풍농을 기원하는 춤

\*고도모가구라(子供神樂:우찌기진, 간시이):아이들의 춤

##### < 후반부 >

10.이찌가구라(一神樂):신을 기쁘게 하는 춤

\*간조제(願成就)가구라:기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춤

11.히라테 시끼삼바(平手式三番):일월성신을 맞이하는 춤

---

은 민가를 가구라야도로하는 경우가 드물고 신사에서 가구라를 하기 때문에 신사에서 2곡을 한다. 또한 33거리에 포함시켜서 가구라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었다.

- 12.문노가구라(紋神樂):활과 화살을 들고 사냥을 표현하는 **춤**
- 13.이나리가구라(稻荷神樂):풍작과 풍농을 기원하는 **춤**
- \*시바이레(芝入神樂):자연재해를 나타내는 **놀이**
- 14.시바몬도(芝問答):시바고우진과 간누시의 **대화**
- 15.호시사시(星指し)일월성신에게 기원하는 **춤**
- 16.우찌기진(內鬼神)기진의 위력을 나타내는 **가면춤**
- 17.타지카라(手力):타지카라 신의 힘을 표현하는 **가면춤**
- 18.시바히끼(芝引き):사까끼를 뿌리내리게 하는 **가면춤**
- 19.도토리(戸取り):관객들을 즐겁게 놀리는 여흥의 **가면춤**
- 20.오끼에(御喜恵):겨울이 온 것을 알리는 **춤**
- 21.우즈텐노(牛頭天皇):역병을 물리치는 **춤**
- 22.이세가구라(伊勢神樂):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를위한 **춤**
- 23.이와또마이(岩戸舞):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동굴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표현하는 **가면춤**
- 24.다이진가구라(大神神樂):신을 숭배하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춤**
- 25.간사이(神粹):칼을 숭배하는 **춤**
- 26.츠나몬도(綱入答):츠나고우진과 간누시와의 **대화**
- 27.도시노가미(年の神):망치를 들고 한 해의 복을 비는 **춤**
- 28.히노가미(火の神):불의 신이자 조왕신에게 바치는 **춤**
- 29.이리마시(入増):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땅을 굳게 하는 **춤**
- \*카가소히끼(がかそひき:땃줄을 잘라 주는 것):**줄당기기**
- 30.쓰나기리(綱切):땃줄을 자르기 위해 추는 **춤**
- 31.쓰나누시(綱主):땃줄이 잘 잘라졌음을 **축원**
- 32.미카사마이(御笠舞):시메를 거두기 전에 줄을 당기며 추는 **춤**
- 33.가미오꾸리(神送り):모든 신을 돌려보내는 **창행**

시이바 지역에서는 가구라가 시작되기 전에 유식(儒式) 제의(시키텐)를 먼저 하며, 최근에 가구라 보존을 위해서 매년 하는 대체의 경우는 33번으로 진행된다. 현장조사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케노에다오 가구라의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33번 제차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전반부는 각 신들을 불러서 모시고, 신들에게 봉납

하는 가구라이다. 후반부에서는 신화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면서, 춤과 연극으로 연희되는 예능성이 높은 제차로 구성되어 있다. ‘시키텨’을 시작으로 하여, 1번 ‘미야가구라’부터 9번 ‘안나가’까지는 신들을 모시고 신의 길을 여는 것으로, 미꼬우야에 신을 맞이하는 내용이 중심이 된다. 후반부 중에서 10번 ‘이찌가구라’부터 26번 ‘츠나몬도’까지는 신의 위력을 드러내기 위해 춤을 추며, 신화의 내용이 중심이 되어 가구라가 전개된다. 여기서는 춤과 노래와 놀이가 적절하게 연희되어 한 밤중 관객들이 졸리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산간 마을의 생활을 나타내는 수렵과 농경을 예축(禮祝)하는 내용이 많고, 수렵과 화전을 무대로 치산치수(治山治水)를 담당하는 고우진(荒神)을 모시고 타협을 하는 내용이 비슷한 형태로 두 번이나 반복된다.(14번 ‘시바몬도’, 26번 ‘츠나몬도’) 고우진이 신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어 간누시와 문답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미꼬우야를 영망으로 만드는 젊은이들이 등장한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후반부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27번부터 33번까지는 뱀의 모양을 한 긴 꼬단을 베어내는 오로시퇴치(蛇退治)를 한 후에, 모든 신들을 돌려보내는 의례가 행해진다. 후반부는 내용으로 봐서 다시 3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10번 ‘이찌가구라’부터 15번 ‘호시사시’까지는 신을 맞이하여 기쁘게 춤을 추고, 수렵생활을 나타내는 춤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해를 ‘이나리가구라’가 진행되는 도중에 표현한다.<sup>33)</sup> 16번 ‘우찌기진’부터 26번 ‘츠나몬도’까지는 가면을 쓴 춤이 가장 많고, 구우지 1인의 춤(이세가구라)도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된다. 또한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주신(主神)으로 맞이하면서 모든 신들의 위

33) ‘시바이레’인데 이나리가구라가 진행되는 동안에 행해졌다. 가구라의 정식 제차에는 들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시바이레’는 단독으로 하나의 제차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독립된 제차로 넣지 않고 ‘이나리가구라’ 중간에 끼워넣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력을 드러내고, 신들과 한 바탕 놀이를 벌이게 된다. 18번 ‘시바히끼’와 19번 ‘도토리’에서 놀이는 절정에 이른다. ‘시바히끼’에서는 관객과 춤꾼이 사까끼를 서로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를 하면서 구호 소리와 웃음소리로 떠들썩하게 된다. 19번 ‘도토리’에서는 도토리면을 쓴 기진의 우스꽝스러운 행동과(관객들의 엉덩이를 멘보로 찢어서 냄새를 맡는다) 과장된 몸짓에 미끄우야 주변은 놀이판이 된다. 특히 20번부터 23번까지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신화의 주역들이 등장하는 내용의 춤으로 구성된다. 23번 ‘이와또마이’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가 동굴에 숨었다가 바깥에서 나는 시끄러운 소리가 궁금해서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것이다. 다음의 27번부터 33번까지는 성스러웠던 제장을 원래대로 돌리고 신을 보내는 것으로 가구라의 마무리에 해당한다.

전반부에서는 신을 맞이하고(발단:1-9), 후반부에서는 춤과 노래와 놀이를 통해 신의 모습을 드러낸 후 신을 돌려보낸다. 후반부는 다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처음에는(전개:10-15) 춤을 바치면서 미끄우야를 성스럽게 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그리고 난 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절정:16-26) 신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의 위력을 드러낸다. 특히 가면춤이 많으며, 관객과 호흡을 맞추어 놀이판을 이루는 것도 절정에 이른다. 시간으로 봐서도 한밤중이라 관객들이 졸리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결말:27-33) 뱀을 자르는 의식과 함께 신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신을 맞이하는 단계에서 4번 제차인 ‘야도가리’의 여행객은 창행의 내용으로 봐서도 산신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이것은 다음 단계의 중요한 신격인 태양신과도 관련이 있다. 10번 제차인 ‘이찌가구라’부터 23번 제차인 ‘이와또마이’까지의 主神은 아마테라스오미카미인데, 이는 일본의 황조신이자 태양신이다. 천상에 가까운 높은 산악지대에는 천신이 강림하여 산신으로 화신 또는 분신했다. 그래서 ‘야도가리’의 여행객은 산신이면서 산에 내려온 천신의 성격을 지녔다. 산신은 산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

라 산 밑 마을 공동체의 길흉화복을 주재하며, 인간세상을 관할하는 수호신의 성격도 지닌다.

한국의 굿 중에서 마을 굿과 무당굿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연희되고 있는 서해안 바닷가 마을 황도 봉기풍어제<sup>34</sup>)와 일본의 가구라는 마을의 안녕과 복을 비는 마을 행사라는 점에서는 닮은 점이 많다. 봉기풍어제의 경우는 19개의 거리<sup>35</sup>)로 연희되었는데, 굿의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사부터 뱃기경주까지는 무당들의 본굿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이 중심이 된 일종의 행사였다. 신청울림부터 서낭굿까지는 무당들이 중심이 되어 연희하였다. 굿을 마무리하는 송신의례에서는 마을 사람들끼리 하는 지속경쟁과 뱃고사, 무당들이 하는 대동굿과 강변용신굿이 있었다. 또한 마을굿이 지금까지도 정월초의 가장 큰 행사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을 당집에 대한 믿음과 당신화를 향유해왔기 때문이다.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재난이 닥치면 당신에게 먼저 의지하고 기원하게 된다. 이런 행위들은 당신화를 향유하는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곤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하게 되었다.

앞의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가구라는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 신화를 바탕으로 하여 태양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의 삶에 활력을 부여하는 제전이다. 가구라에 등장하는 신들은 야

34) 황도 봉기풍어제는 음력 정월 초이틀과 초사흘(2004년 1월 23일부터 1월 24일까지)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황도리에서 연희된 서해안풍어제의 하나이다. 해마다 이 마을에서는 같은 시기에 풍어제를 하는데, 서해안 대동굿을 주로 맡아했던 만신 김금화가 주관을 한다. 이 굿은 마을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풍물굿을 하면서 주민들이 영험하다고 믿는 만신의 무당굿이 서로 조화를 이룬 굿이다.

35) 봉기풍어제에서 연희된 거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피고사-안반고사-세경굿-부정물림-당오르기-뱃기경주-신청울림-상산맞이-초부정, 초감홍굿-영정물림-칠성제석굿-성주굿-소대감놀이-성수거리-타살감홍굿-만산장군거리-제주거리-대감굿-서낭굿’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마을 사람들 중심의 배치가 첨가되었다.

도가리의 산신(山神)을 비롯하여 시비몬도의 고우진(荒神), 타지카라(手力神), 우즈텐노(牛頭天皇), 아마테라스오미카미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길흉화복과 관련된 신들을 차례로 등장시키고 있다. 신의 모습을 현상화한 가구라 춤을 통해서 신을 드러내고 보내는 것은 마을에 닥치는 재난을 막고 농경 작물의 풍요를 기원하며, 마을 사람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큰 힘이 된다.

## V. 다케노에다오가구라의 특성

사이바 지역 다케노에다오가구라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1) 가구라의 제의에서 중요한 것은 신에게 춤을 바치는 것이다. 춤을 바친다는 것은 일본신화에서 황실의 조상신인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를 동굴에서 끌어내어 태양신의 부활을 기원했던 진혼제(鎮魂祭)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각 제차 별로 성격이 다른 신에게 바치는 춤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가구라의 제차는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발단’에서는 신을 모셔오는 내용의 창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전개’에서는 춤이 중심이 되어 신에게 지난해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다가올 한 해의 기원을 드러낸다. ‘절정’에서는 가면춤이 많은데, 일본의 신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신의 성격과 위력을 나타낸다. ‘결말’에서는 춤과 놀이와 창행이 골고루 섞여서 신을 보내고 액귀를 물리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신을 청하여(請神) 신의 모습을 나타내서 보고(顯神), 신과 함께 즐겁게 놀고(娛神) 나서 신을 돌려보내는(送神)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굿은 일반적으로 신을 청하고 부정을 물리는 청신(請神)의례를 한 후에, 무당들과 악사들이 자리를 잡고 나서 본격적인 오신(娛神)

의례가 진행된다. 그리고 나서 신을 모셔서 즐겁게 놀고 놀린 뒤에 제자리로 모두 돌려보내는 송신(送神)의례로 마무리를 한다.

가구라의 제차에서는 신의 위력을 나타내서 보는(顯神) 의례가 한국의 굿에서보다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2) 일본의 고대 신화가 지닌 요소들이 가구라의 연희 현장에 춤과 노래와 이야기와 놀이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라의 제차 중에서 처음 춤을 춘다는 의미를 가진 이찌가구라(一神樂)는 아미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를 모시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신화는 오오히루메무라(大日靈貴) 즉 태양신이면서 나중에 천황의 조상신이 되는 아마테라스오오가미(大照大神)가, 동굴로 숨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즉 아마테라스가 동굴에 숨어 버린 탓에 세상이 암흑으로 변해버리자, 신들은 아미테라스를 동굴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공리를 한다. 그 방법으로, 아마노이와야토(天岩戶-하늘에 있는 암굴.동굴) 앞에서, 아메노우즈메노미토고(天鈿女命)가 신 내림을 하며, 주술적인 행위와 노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을 두드려 펼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며, 조용한 행동은 아니라고 되어 있다.<sup>36)</sup> 아마노이와야토(天岩窟戶-하늘의 동굴. 아마노이와도의 다른 말)로 태양신이 숨는 것은, 11월에 태양이 쇠하여 힘이 약함을 상징하는 신화였다. 거기서, 내부생명력을 충실하게 하여, 태양신의 활력을 부활시키는 주술이 행해지는 것이다.

한국의 굿에도 신화적인 요소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마을굿의 당신화는 그 흔적이다. 가구라는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연희되는 제차이지만 일본 황실의 조상신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제의 내용의 뼈대로 삼고 있다.

(3) 가구라를 마무리하는 부분의 ‘즈나기리’와 ‘즈나누시’는 스사노미고토(素戔鳴尊)와 관련된 신화이다. 스사노미고토(素戔鳴尊)는 아버지

36) 本田安次, 「神樂の命脈」, 『日本の古典藝能 第一卷 - 神樂』平凡社. 1969.

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가 올면 나무가 말라서 푸른 산이 메마른 산이 되고 강과 바다가 모두 말랐을 뿐이 아니라 악신들이 일어나서 재앙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것은 스사노미고토가 균형잡힌 조화의 세계를 깨뜨리는 존재이며, 세상에 혼란을 가져오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37)</sup> 그러나 스사노미고토가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닌 것은 아니다. 천상계에서 신들로부터 추방당한 그는 이즈모국에 가서 꺾박 받는 선주민들의 고난을 해결해 준다. 그들에게는 구시나타히메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야마타노오로치(八俣大蛇)에게 잡아먹힐 위험한 처지에 있었다. 야마타노오로치를 퇴치하여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 준 뒤에<sup>38)</sup> 결혼을 하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된다. 스사노미고토는 가구라 연희 현장에서 표현되는 고우진(荒神)과 같은 성격을 지녔다. 스사노미고토가 노인의 딸과 혼인할 것을 약속받고 뱀을 퇴치 할 때, 뱀이 술에 취하여 잠들게 한 후 칼로 뱀을 토막내는 것은 가구라 제차에서 ‘즈나이레’를 할 때 뱀의 머리에 술을 묻히는 것이나, ‘즈나기리’에서 뱀을 토막내는 것과 같다. 신화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스사노미고토(素戔嗚尊)의 난폭하고 예외에 어긋나는 모습과 뱀을 퇴치하는 이야기에서 가구라에 등장하는 신의 성격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 신화의 주역 중의 하나인 스사노미고토(素戔嗚尊)를 牛頭대왕이라고 하는가 하면 농업신, 명부(冥府)의 신, 난폭한 신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나리가구라’의 끝부분에 ‘시바이레’를 하는데, 미꼬우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쳐들어온다. 이것은 ‘간시이’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연출한다. 그러

37) 『古事記』의 내용을 보면 스사노미고토의 성격이 난폭함을 알 수 있다. “스사노미고토는 아미테라스오미카미가 경작하는 논두렁을 부수고 그 눈에 들어갈 물이 흐르는 개천도 메워버렸다. 또한 아미테라스오미카미가 천지의 신에게 햇곡식을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는 신전에 똥을 뿌리기도 했다...”(離天照大御神之營田之阿 埋其澤 亦其於聞看大嘗之殿屎麻理散 故雖然爲...)

38) 다케노에다오의 가구라 第次에서 ‘즈나기리’와 ‘즈나누시’는 뱀을 잘라서 던져 버리는 것인데, 이것도 신화의 내용이 습합된 것이라고 본다.

고 나면 반드시 간누시(神主)와 신(荒神)의 문답이 이어진다. 문답의 내용을 보면 신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신은 가만히 두면 화를 내지 않으나 잘못하면 크게 화를 내고 재난을 준다고 한다.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는 상관없이 신이 제 마음대로 그럴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위력을 신의 힘으로 돌리는 것이다.

(4)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절차 중의 하나가 본격적인 제차에 들어가기 전에 행하는 ‘이따오꼬시’이다. 이따는 도마를 말하는데 다까마가하라와 미꾸우야를 장식하는 고헤이를 만들 때 사용된다. 가구라 제장의 준비가 끝나면 전원이 도마 위에 종이를 놓고 노래를 부르며 자르고, 종이를 자른 후에는 도마를 엮어놓는다. 이따오꼬시가 끝나면 멧돼지 고기를 잘라서 나누어 먹는 것도 이 지역의 중요한 행사이다. 이것은 다케노에다오가 속한 시이바 지역이 산간지대이며 수렵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上田正昭 「祭と神樂」에서 규슈지역의 요가구라(夜神樂)을 설명하면서, 신내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노래로 한 뒤에 33 제차의 춤을 춘다고 했다. 춤은 33제차라고 하나가면을 쓰지 않은 춤과 가면을 쓰고 하는 춤이 섞여 있으며, 특히 ‘이와토비라키(岩戸門)’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sup>39)</sup> 가구라의 춤이 태양신인 아미테라스오미카미를 기리고 부활시키는 것과 스사노미고토의 양면적인 신성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다케노에다오 지역이 시이바 산간 오지 마을의 한 곳이라는 지리적인 특색으로 인해서 외부와의 접촉이 적고, 가구라의 원형을 비교적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VI. 결론

39) 上田正昭 「祭と神樂」 『日本の古典藝能 第一卷 - 神樂』平凡社, 1969, 76쪽.

조사 대상으로 삼은 가구라는 시이바 지역의 다케노에다오가구라이다. 다케노에다오가구라는 토리모노 즉, 방울, 부채, 칼, 고헤이 등을 들고 춤을 추며, 가면이 일부분 등장하는 이즈모류의 가구라이다. 이즈모류의 가구라는 히로시마현의 동부인 이즈모의 사다대사(佐陀大社)에서 행해진 산사(神事)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일본에서 행해지는 가구라 중에서 가장 널리 연희되는 형태이다.

음력 11월 즉 양력 12월이 되면 시이바 지역은 가구라의 계절이 된다. 겨울이 더 깊어지기 전에 태양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태양신의 활력을 불러일으켜 약해지는 인간의 마음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시이바 지역은 마을에 따라 곡목을 조금씩 달리하는 가구라를 연희한다. 그러나 맨 얼굴에 토리모노를 들고 추는 춤이 중심이 되고 가면춤이 밤새도록 거행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가면춤은 토리모노춤을 추고 나서 진행된다. 내용으로 볼 때 토리모노춤은 신을 맞으려는 것이고, 가면춤은 지상으로 내려온 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그 위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신을 맞아들여 신의 모습을 보고, 신의 영력을 빌려와서 생활의 안녕을 꾀하고자 하는 의도가 가구라춤으로 형상화 된 것이다.

시이바가구라는 한국의 마을굿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조화와 마을 공동체의 조화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의례를 행할 때, 樂歌舞로써 신을 청하고 즐겁게 놀리는 연희예술을 수반하는 종교의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국의 굿에서는 무당굿의 경우는 전문예술가이자 종교 사제자의 역할을 하는 무당이 연희하기 때문에 의례의 내용이 세련되어 있다. 마을 사람들의 풍물굿은 중간중간에 끼어들 뿐이다. 그러나 일본의 가구라는 주민들에 의해 연희되기 때문에 의례가 비교적 단순하고 정형화되어 있다.

한국의 굿과 일본의 가구라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신을 맞아들여 마을의 안녕을 빌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신에게 바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따라서 일본 전역에서 널리 연희되고

있는 가구라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일본 가구라의 속성을 밝혀내고, 한국 굿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변별성과 공통성을 분명히 밝혀내는 것이 남은 과제이다.

**주제어** : 가구라(神樂), 가무쿠라(神座), 다케노에다오 가구라 (獄之枝尾神樂), 미가구라(御神樂), 사토가구라(里神樂), 마을굿, 봉기풍어제, 시이바(椎葉), 스사노미고도(素戔鳴尊),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 아마노이와야도(天岩窟戸), 아메노우즈메노미토고(天鈿女命), 토리모노(採物), 야도가리(宿狩), 시메(注繩), 미즈히끼마쿠(水引幕)

## 참고문헌

- 김열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신화론』, 아카넷, 2003.  
 김석형, 『고대 한일 관계사』, 한마당, 1998.  
 김화경, 『일본의 신화』, 문학과지성사, 2002.  
 노성환, 『일본신화의 연구』, 보고서, 2002,  
 비교민속학회 편, 『민속과 종교』, 민속원, 2003.  
 최인학 외, 『비교민속학과 비교문화』, 민속원, 1999.  
 하효길 외, 『한국의 굿』, 민속원, 2002.  
 本田安次, 『日本の古典藝能 第一卷, 神樂』, 平凡社, 1969.  
 山口保明, 『宮崎縣の民俗藝能(三)』, 宮崎縣民俗學會, 2001.  
 宮崎縣 椎葉村, 『村勢要覽資料編』, 2002,1.  
 渡辺伸夫, 『推葉神樂調査報告書, 第三集』, 推葉村教委員會, 昭和58년.  
 미르치아 엘리아데, 이윤기 옮김, 『샤머니즘』, 까치, 1992.

이 논문은 2004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4년 5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4년 5월 28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